

## 모지코역

모지: 일본과 세계로 향하는 현관문

모지코역은 1891년 이래로 규슈를 혼슈, 그리고 세계와 연결해 왔습니다. 좌우 대칭적인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디자인은 문을 연상시키며, 1세기 넘게 모지 항구가 수행해 온 역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이 건설된 이래 이전, 개명, 개축되어 왔지만, 20세기 초 모지의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1988년에는 철도 역사 최초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모지 항구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14년, 모지시는 오래된 역사를 허물고 새로운 역사를 더 바다와 가까운 곳에 세웠고 이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모지역’이라고 불렸으나 1942년 4월 ‘모지코(모지 항구)역’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 명칭 변경은 규슈의 철도를 혼슈와 연결하는 ‘간몬 터널’의 개통과 같은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 유럽 건축의 영향

목조 2층 구조의 이 건물은 돌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모르타르로 덮여 있습니다. 망사르드 지붕, 철제 장식, 그리고 정면 현관 옆 기둥은 모두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주류였던 네오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유럽식 요소는 서양의 디자인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일본의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 과거 번성했던 역

모지코역은 6년간의 대규모 개보수를 거쳐 2019년에 재개장했습니다. 현재의 모지코역 역사는 공공 철도역이자 1900년대 초 모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1등석과 2등석의 승객 대합실이기도 했던 매표소에는 호화로운 맨틀피스와 벽난로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메인홀 안쪽은 3등석 여객의 대기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카페로 개조되었습니다. 2층에는 과거 신분이 높은 여행객을 위한 특별한 라운지와 그들의 고용인을 위한 별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여행객들은 열차의 식당차도 운영한 고급 레스토랑 ‘미카도 식당’의 유럽 요리도 대접받았습니다. 그러한 호화로운 가구와 우아한 인테리어는 현재 이 역사적인

역사의 전시물이 되었습니다.

### 추억과 함께하는 모지코역

모지코역은 모지 항구와 규슈를 육로로 연결하고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항구에서 출발하여 이 항구로 돌아왔고, 그중에는 지금까지 구전되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 이케다 우타코와 ‘자부심의 거울’

북서쪽 동에는 이케다 우타코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플래카드와 장식이 되어 있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해외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지코역은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몹시 붐볐는데, 여기에는 임신 중인 우타코가 있었습니다. 우타코가 승강장에 있었을 때 진통이 시작되며 양수가 터져 버렸습니다. 이미 한밤중이라 진료소는 모두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역무원 중 한 사람이 우타코의 3살 된 아이를 등에 업고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우타코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타코는 모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아기에게 ‘모지(門司)’의 한자를 사용한 ‘사문지(左門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케다 사문지의 부친은 1971년 ‘자부심의 거울’을 모지코역에 기증했습니다. 이는 역무원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역에서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기증한 것입니다.

### 귀향수

승강장 옆에 있는 오래된 화장실 앞에 ‘귀향수’라고 불리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모지코역을 오가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는 유구 중 하나입니다. 귀환병과 식민지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이 음수대에서 기선의 그늘음과 여행의 먼지를 씻어내고 조국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